불도 부산, 3년 만에 모여 연등축제

제등행렬 등 부산연등축제 개최
4월 22~30일, 송상현 광장 등서

'다시 희망~일상으로' 기원하며
희망과 치유 상징하는 등 밝혀
전통문화체험, 소원등 달기 등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연합회가 4월 22일부터 4월 30일 부산 송상현 광장 및 부산시민공원 일대 에서 '부산연등축제'를 개최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가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부산 송상현 광장 및 부산시민공원 일대에서 '부산연등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부산연등축제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3년 만에 정식으로 열렸으며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를 기원하며 희망과 치유를 상징하는 등을 밝혔다.

4월 22일 점등법회 및 연등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진광정사, 마나 스님을 비롯해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신상해 부산시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백종헌 국회의원, 이헌승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불교TV 염불공양회의 육법공양으로 시작해 부산영산재보존회의 영산재가 이어졌다. 이어 사부대중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마음을 모았으며 상임부회장 진광정사의 고불문에 맞춰 함께 기도했다.

고불문에서 진광정사는 "지극한 정성으로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혀 부처님께 간절히 바라오니 일상을 회복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루 빨리 고통을 여의고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했다.

이어 상임부회장 마나 스님의 축원이 진행됐으며 부산불교대상 수상 및 부산불교합창단 연합 감사패 및 임명패 수여가 이어졌다. 내빈들의 봉행사 및 봉축사, 축사가 진행됐으며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어린이들의 전통 호기놀이 후 점등으로 마무리됐다.

회장 경선 스님은 점등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 몇 해간 '코로나'라는 역경의 어둠 속에 갇혀있었다. 비록 코로나 종식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희망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다"며 "오늘 부산 시내를 밝힐 장엄한 빛의 향연이 부산 시민들에게 희망으로 나아가는 반가운 소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멈추었던 제등행렬을 다시 시작한다. 멈추었던 삶이 전진하듯, 부산 시내를 가로지를 빛의 걸음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치유의 행진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연등행렬은 4월 30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출발해 하마정교차로와 양정교차로를 지나 송상현 광장에서 회향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송상현 광장에서 부산연등문화제를 개최한다. 부산연등문화제 기간에 송상현 광장에서는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소원등 달기, 무차만발공양, 무료사진 체험 등이 전개된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부산불교대상' 시상식

양재생 · 정창교 회장 공동 수상
4월 22일, 부산연등축제서 시상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4월 22일 부산 송상현 광장에 설치된 부산연등축제 특설무대에서 '제4회 부산불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가 4월 22일 부산 송상현 광장에 설치된 부산연등축제 특설무대에서 '제4회 부산불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은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과 정창교 ㈜국제식품 회장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사단법인 미소원이 받았으며 우수상은 광명사 관음회, 사단법인 동련, 부산개인택시 반야회가 수상했다. 이번 해 특별공로상은 이현주 범어사성보박물관 부관장이 수상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1000만 원과 상패를 전달했으며, 최우수상에게는 상금 500만 원과 상패, 우수상에게 상금 각 300만 원과 상패, 특별공로상에게는 상금 500만 원을 수여했다.

대상 수상자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은 불교 나눔 철학을 바탕으로 40년 동안 꾸준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부산불교총연합회신도회 수석부회장,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 신도회장으로 활동하며 불교발전은 물론 불교가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봉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동 대상 수상자 정창교 국제식품회장은 삼광사 나눔 재단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2019년 부산불교문화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불교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사랑의 쌀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매년 5월 '어르신과 함께하는 따뜻한 밥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연말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한우 곰거리를 15년 이상 기부하고 있으며, 지역 인구의 역외 유출과 출산율 저하로 부산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세자녀출산지원재단 출산축하금을 기탁했다.

코로나19로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 환자와 직원을 위해 갈비탕을 전달하는 등 사회 환원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공헌점이 높이 평가됐다.

부산불교대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실천함과 동시에 지역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불자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뒀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공동주최하고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주관한다.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은 "오늘 수상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실천함과 동시에 지역과 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이어왔다"며 "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하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경남 지역, 봉축 점등식 봉행

해인사, 기장군사암연 등



부산과 경남 지역 곳곳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 점등식이 봉행됐다. 부산 기장군사암연합회(회장 정오)가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3일 장안사 일대에서 기장군사암연합회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에는 기장군사암연합회장 정오 스님,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 해동용궁사 주지 연규 스님, 해광사 주지 태공 스님,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 등 연합회 소속 스님들과 성환필 기장군사암연합회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밀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진각)는 4월 22일 밀양역 광장에서 '불기2566년 봉축등'을 밝히고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했다.

밀양불교사암연합회는 '진리의 등, 광명의 등, 생명의 등'을 밝히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했다. 점등식에는 밀양불교사암연합회장 진각 스님, 삼양사 지설혜 스님, 약수암 환명 스님, 용궁사주지 정무 스님, 수덕사 성정 스님 등을 비롯한 소속 회원 스님들과 박일호 밀양시장, 황걸연 밀양시의회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는 4월 22일 합천군 야로면 월광로타리에서 불기2566년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했다. 〈사진〉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는 4월 22일 남부경찰서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창원포교당 안국사, 주지 취임식

4월 30일, 성오 스님 취임



통도사 창원포교당 안국사(주지 성오 · 사진)가 4월 30일 대웅전에서 주지 취임 고불식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안국사 주지 성오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허성무 창원시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안국사가 창원 최고의 명품 포교당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불사가 원만 성취하여 창원 도심을 대표하는 명품 문화법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지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임 주지로 취임한 성오 스님은 "불사를 위해 함께 노력 봉사해준 모든 사부대중에게 감사하다"며 "함께 화합하고 지역 사찰과 상생 발전해 신도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국사는 육군 제35사단의 호국법당이었다. 2015년 군부대 이전에 따라 안국사 존치위원회와 창원시 간의 협의로 기존법당 인근에 종교용지를 확보해 통도사 창원포교당으로 등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대불련부산동문회, 14·15대 회장 이취임식

4월 28일 소림사 법당서



대불련부산동문회(회장 전정순)가 4월 28일 부산 소림사 법당에서 제14 · 15대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전정순 15대 신임회장〈사진〉과 최은희 14대 회장 등 대불련부산동문회 소속 회원들이 동참했으며, 조석주 대불련 중앙회장, 유선재 서울지부장, 윤소연 대불련 중앙집행위원을 비롯한 부산 대불련 대표 이동규(부산대), 최문봉(동아대), 김동영, 양자원, 변제환(동명대)이 참석했다.

전정순 신임 회장은 "어깨가 많이 무겁고 책임감에 마음이 천근이나 되는 것 같다. 저에게 주어진 것이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여러 선후배님들 믿고 시작해본다"며 "혼자서는 잘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박 수 관

수석부회장 양재생 정창교

■부회장
국제교류부회장 최금식
사회문화부회장 박수곤
불교경제사회부회장 조용국
대외협력부회장 이수태
정치교류부회장 신상해
사찰문화부회장 최삼섭
섭외부회장 최영호
홍보부회장 이경신
법률부회장 박명진
사회교육부회장 정종원
사회공헌부회장 박형연
재무부회장 김원용
총무부회장 박종문
기획부회장 이희태
경조부회장 신기열
행정교육부회장 최대경
행정법률부회장 박도영

■무임소부회장
김진수 이오상 윤종경 김영주 김홍종 김선조 문 호
박효섭 최태식 이종우 유영남 강경희 장호익 김정화
김영도 공정근 최상곤 손정원 류길자 백영선 김옥희

■고 문
김재진 박원양 장복만 조효식 박정오 전광수 설동근 이윤희 김수현 하정선

■자문위원
정홍섭 이장호 박홍대 전호환 박태학 고영립 박한일

■집행부
사무총장 장병주
기획이사 김기호 김민성 노현주
경조이사 오세룡
교육이사 이륭우 김윤희
국제교류이사 이윤희
문화이사 이영숙 김민성
법률이사 성원석 홍재석
사찰협력이사 강갑균
사회공헌이사 정진우 강미영
섭외이사 이만수
재무이사 이근욱
총무이사 배도정 이현수
친목이사 문종현
홍보이사 손정현
집전 류상영

■이 사
강근순 강길주 류강렬
성재곤 심인택 안천일
유지호 이동진 이명학
송재린 정순천 하승준

봉 불기 2566년 축
부처님 오신날

경축
5월 10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